

AI: 인간의 자발적 진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주축, AI. AI는 사람들이 꿈에 그리는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많은 우려를 낳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AI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밝힌다.

과거: AI의 디스토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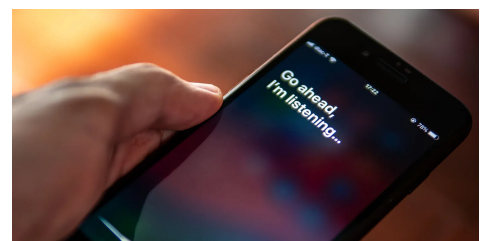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전, 과거의 대중 매체는 AI와 로봇이 세계를 장악하는 디스토피아를 그려냈다. 프리츠 랑 감독의 1927년 작품, SF 영화의 시초로 불리는 “Metropolis”에서 인공지능 로봇은 억압받는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억압하기 위한 존재로 등장한다. 영화 메트로폴리스 속 로봇은 선행이 없는 척결의 대상이며, 영화는 로봇의 모습과 대비되는 인간성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AI의 파괴적인 면모는 대중에게 익히 알려진 영화 “터미네이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터미네이터” 속 최대의 인공지능인 ‘스카이넷’은 핵전쟁을 통해 인류의 반 이상을 절멸시키고, 다른 로봇들을 통해 인류를 지배한다. 또한 작품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공지능 로봇 ‘T-800’은 인공지능에 대한 저항군의 조직을 막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주인공의 출생을 막으려 하는 살인 병기이다.

이 두 영화를 포함한 과거의 대중 매체는 AI로 인한 미래의 비극을 대중에게 보였으며, 현재에도 AI로 인한 디스토피아를 그려내는 작품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의 AI는 과거의 예상대로 우리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존재가 아니다.

현재: 사회의 거대한 톱니바퀴, AI

현재의 AI는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애플의 소프트웨어 ‘시리’로 대표되는 AI 비서는 많은 전자 기기에 탑재되어 스스로 입력받은 내용을 판단하고 적절한 무언가를 추천해주거나, 우리가 명령한 일을 스스로 해낸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전반에서 AI의 활약은 지대하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이 메트로폴리스나 터미네이터 속 인공지능처럼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가? 현재 우리 곁에 있는 인공지능은 대부분 우리를 위협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인간의 명령 밖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현재의 AI는 주어진 업무를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탁월한 도구일 뿐, 그 이상의 가치는 지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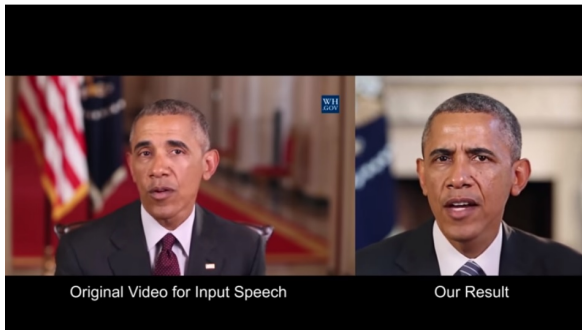
지난 2016년, 구글의 알파고와 한국의 이세돌 9단의 경기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며 AI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덕분에 한동안 ‘알파고’는 AI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이기도 했다. 이 경기 이후 상당수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위를 초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지위는 능력과 별개의 문제다. 알파고는 4승 1패로 이세돌 9단과의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돌 9단의 바둑 기사로서의 지위를 뺏지는 않았다. 오히려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유일한 1승을 거둔 이세돌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알파고는 그 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다른 AI도 이와 다르지 않다. 어떤 방면의 AI라도 인간을 도울 뿐 인간의 지위를 뛰어넘지는 않고 있다.

이는 단순 노동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AI와 로봇이 단순 노동자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이것은 AI가 인간의 지위를 빼앗는 것과는 다르다. AI가 단순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은 사업가의 결정이며, 그렇게 인간을 대체한 AI는 여전히 인간의 통제 하에 움직인다. 따라서 AI가 단순 노동자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AI의 위협이 아니다. 오히려 AI를 더욱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사회의 자연스러운 변화라 할 수 있다.

미래: AI에게는 의도가 없다

미래의 AI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AI가 우리를 위한 도구라는 것은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다. AI는 결국 프로그래머의 통제 하에서 그의 의도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에게 반하는 행동을 할 수는 없고, 만일 그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AI로부터의 위협은 분명히 생겨난다. AI는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인간은 누군가의 명령을 듣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AI를 활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딥페이크 기술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많다. 최근 텔레그램에서는 딥페이크를 활용해 여성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범죄가 발생했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딥페이크로 모방한 영상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뉴스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AI의 악용을 조장 혹은 방관하는 것은 인간이다. AI가 인간의 악의를

따른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AI는 또한 제대로 다루지 못했을 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MS사의 AI 자동학습 챗봇 ‘테이’는 부적절한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학습하고 사용해 공개 16시간만에 중지되었다. 국내에서도 챗봇 ‘이루다’가 비슷한 사고를 일으켜 2021년 1월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사고들은 인간이 AI를 철저히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AI는 명백한 도구다. AI는 의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에 복종한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에 우려해야 할 것은 AI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다. AI에게는 자신을 올바른 길로 명확히 인도할 윤리적인 사용자가 필요하다.